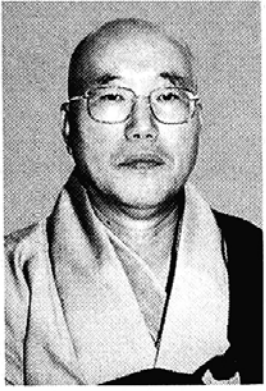


### “독서문화 저변확대 절실”

불서전 마친 불교협회장 원택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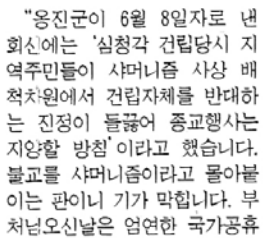
“도서전 개최에 안주할 게 아니라,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출판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는 곧 열악한 조건의 출판업계가 도약을 할 수 있는 절경이며 불교발전의 원동력입니다.”

12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 불교도서전 사회를 회향한 불교출판협회의장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이번 전시회가 사찰도서관만들기 운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20여개의 출판사 1천5백여종 전시, 구매자 청장년층, 학술서 인기, 1일구매고 2백여명 등이 이번 전시회의 특징. 스님은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과 각 출판사들의 서적 보시를 받아 사찰도서관 만들기 일환으로 포교당, 직장 신협단체 등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현대불교신문이 벌이고 있는 ‘우리집에 도서관을 만듭시다’ 연중캠페인에 종단과 단체, 각 사암 등 모든 불자들이 합심,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스님은 내달초 풍기화회를 갖고 홍보, 부스 설치 등 각종 미비점들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많은 출판사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교출판협회는 내년부터 각 사찰과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년2회로 확대 개최, 최소한 5천여권의 불서를 확보해 사찰에 기증한다는 복안이다. 김준근 기자

### “기독교 면장이 종교자유 훼손”

백령도 종교편향 시정요구 대은스님



“응진군이 6월 8일자로 낸 회신에는 ‘심각한 건립당시 지역주민들이 사머니즘 사상 배척차원에서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진정이 틀어져 종교편향은 지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를 사머니즘이라고 몰아붙이는 판이니 기가 막힙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엄연한 국가공휴일이고 서부전선 최강단인 응진군 백령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을 환하게 밝히면 북녘동포들이 이를 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낄 수 있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행사인데 기독교인인 백령면장이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고종 인천교구총무원장 대은스님(응진군 주지)은 12일 인천시장과 응진군수에게 항의공문을 보낸데 이어 23일 인천시장과 인천불교연합회의의 만남에서 지난 5월 8일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연등행사 방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백령면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기선 인천시장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스님은 응진군수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태고종 및 종교편향대책위와 연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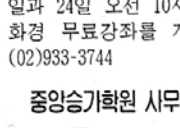
백령도는 주민의 95%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텃세가 심한 곳. 대은스님은 “기독교인인 백령면장이 앞장서 연등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나라와 민족에 큰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을 이간시켜 종교싸움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백령도에 환하게 연등을 밝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 교차로

법회경 무료강좌 개설 (회장 노대행님)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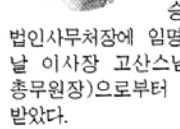
자우 금강사 주지는 7월7일부터 1년6개월간 매일 음력 7일과 24일 오전 10시30분 법회경 무료강좌를 개설한다. (02)983-3744



“지혜의 문...” 출판기념회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는 7월2일 오후2시 대웅전에서 <지혜의 문 행복의 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기념식후 동국대 정병교수의 <반야심경> 특강도 열린다.



종양승가학원 사무처장에 종석스님(종양승가대 교수)은 22일 학교법인 중앙승가학원 법인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이날 이사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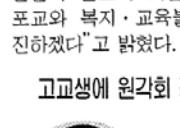
국공유사 위령대법회 법장 육군 57사단 함승위원장(무진법장사 주지)은 22일 서울 57사단 호국유사에서 호국영령 위령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역 향승과 사단장 및 각급 지휘관과 장병, 군인가족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도선사 주지께 광복 70주년 기념의원은 2일자로 도선사 제14대 주지께 임명됐다. “정당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의 화합과 신령, 포교와 복지·교육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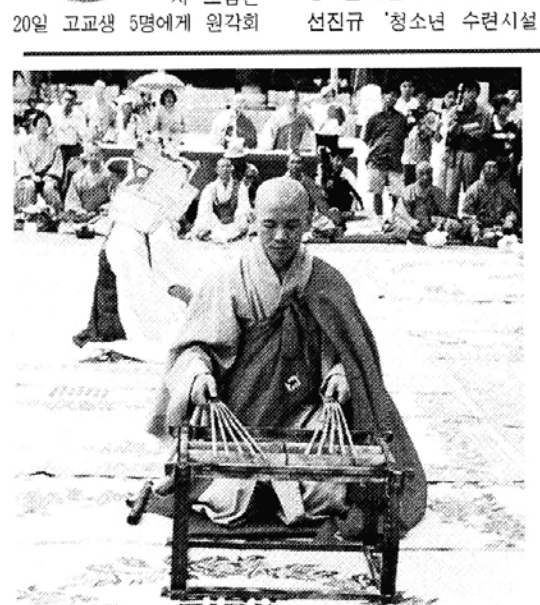
결식아동·독거노인에 후원금 각우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22일 송파구내 삼전초등학교 및 석촌초등학교, 배명중학교 결식아동·청소년과 지역 독거노인 등 1백여명에게 장학금과 결식후원금을 전달했다.



고교생에 원각회 장학금 일운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 스님은 20일 고교생 5명에게 원각회



청소년 수련시설 자정결의 선진규 ‘청소년 수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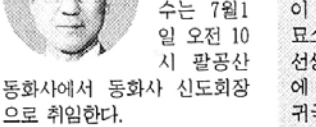


운영자 협회 회장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은 22일 전국 수련

시설 대표자 모임을 소집,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와 시설 이용 자율화에 따른 자체 자정운동을 떠나가기로 결의했다.



고은시인 美서 일시 귀국 백범 50주기 추모시 낭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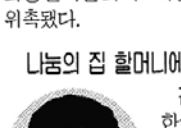
1년간의 일정으로 미국 하버드대와 버클리대에서 ‘한국시’를 강의하고 있는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이 26일 서울 효창원 김구묘소에서 열린 백범 김구선생 서거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위해 23일 일시 귀국했다. 추모식과 같은 날 저녁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백범 서거 50주년 나라사랑’ 열린 음악회에 참석해 추모시를 낭송한 고은시인은 2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평등지문위원회 위촉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동대총동창회 부회장)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2년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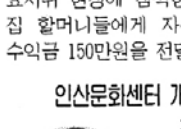
니들의 집 할머니에 성금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은 23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현장에 참석한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자선음악회 수익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인신문화센터 개원 김윤세 인산가 대표는 17일 서울 인사동 임구오 원빌딩 9층



보고예술사진실 이전 개원 이광순 보고예술사진실 대표(사진작가)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으로 확장이전 개업했다. (02)732-6934



제주온돌 사무실 이전 임기현 제주온돌기사를사회 회장은 7월3일 오후2시 제주시 용담1동 흥법정사에서 사무실 이전 현관식을 거행했다. (064)751-0108



### 조계종 성보도둑 잡은 경관에 공로패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4일 성보문화재 도난범을 조기 검거한 임실경찰서 배영근 경장과 소속 경찰서장 박관배 총경에게 총무원장 공로패와 포상금(각 50만원)을 수여했다. 임실경찰서 배영근 경장은 선운사 말사 신홍사 성보문화재(월영스님 부도) 도난사건 발생 20일만인 지난 12일 범인을 검거하고 도난 성보문화재를 되찾았다. 되찾은 월영스님의 부도는 조선시대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성보문화재 도난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난범의 검거나 성보문화재의 회수는 극히 미진했다. 총무원은 이후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조기에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김용옥씨 도올서원서 불경강회

7월4일부터 금강경·대승기신론 등 설파



지난 5월9일 봉원사에서 ‘공과 깨달음’ 주제로 강연회에서 1천여 사부대중을 사로잡은 김용옥 도올서원 원장이 다시 불자들을 대상으로 명강의를 펼친다. 7월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문화회관 옆 도올서원에서 ‘우리 문화의 한 근원 불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회에서는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등 불경이 강론되며, 화이트 헤드의 ‘과정과 실제’ 등도 강독한다. 특히 화계사 조실 송산스님의 법문도 들을 수 있어 불자들이 접하기 힘든 수준높은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마감은 6월30일. (02)744-7992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 “비불자·초심자 전법에 초점”

소책자 ‘날마다...’ 펴낸 성재도 원장



“경전속에는 일상을 돌아보고 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경구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접할 기회가 없어 묻혀 있었던 불법의 진리를 다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불교경전 내용을 쉽게 소개하는 월간 소책자 <날마다 좋은 날>을 창간한 성재도(44) 부산불교교육원장은 초심자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매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혜로운 하루,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매일 1일 발간되는 <날마다 좋은 날>은 불경 속의 경구를 쉽게 풀이해 날마다 한 구절씩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탈의 선지식 코너’에 큰스님 법문도 수록하고 있어 수행 지침서 역할도 하게 된다. 지난 13일 출판사 ‘날마다 좋은 날’을 등록, 불교문화기초교리 참선 관련 불서를 펴낸 예정인 성 원장은 23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서 포교를 시작하기로 했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 ‘깨침’ 독려 간당의식 70년만에 복원

단오인 지난 18일 봉원사(주지 인공)에서 열린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회에서 간당의식(看堂)의식이 70년만에 복원, 재현되어 관심을 모았다. 간당의식은 마음을 상징하는 장방형의 불인 간당불과 중생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선체라는 법구를 이용하여 주로 선원에서 입선과 방선할 때 선객들로 하여금 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깨우침을 독려하기 위한 한국고유의 묵언작법이다. 간당은 선원에서뿐 아니라 예불후 의식으로도 행해졌는데 예불이 끝난뒤 설법과 간당, 송주기운대 하나를 행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일본이나 중국불교에서는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져왔던 간당은 70여년전까지도 몇몇 사찰에서 그 맥을 이어오다 지금은 그 의식을 볼 수 없다. 이번 간당의식은 인간문화재 송암스님이 70여년전 봉원사에서 예불후 봉행되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석문의법> <작법귀감>의 간당론 내용을 토대로 봉원사 포교원장 만춘스님이 재현해 내 영산재 시연회에서 공개한 것이다. 이경숙 기자(gilee@buddhapia.com)

## 대원불교대학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법배의식(법현스님) 특강(동·히계 스쿨링때 법배의식 교육)

1 학년	1 학기 (16주)	◇ 불교경전의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불교상용 의식	◇ 유식사상
	2 학기 (12주)	◇ 화엄사상 ◇ 구사론(아비달마)	◇ 중국불교의 이해 ◇ 불교상용의식 실습	◇ 비교종교
2 학년	1 학기 (18주)	◇ 부파불교의 이해 ◇ 대승기신론	◇ 밀교학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 반야사상
	2 학기 (12주)	◇ 한국불교의 이해 ◇ 선사사상	◇ 대승불교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 천태사상

3.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홍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사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제천 묘정암 (0443)653-3249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원주 범운사 (0371)742-2701  
▶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암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방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 방생기도 도량 반야사

· 문수보살의 가피가 어린 ·

삼보 귀의하옵고, 반야사는 문수동자와 세조임금에 얽힌 전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천년고찰로 불자들의 기도영험이 탁월한 곳입니다.

매물지 않은 이곳에서 복전(福田)을 일구십시오.

성제스님

반야사는...

- 신라 성덕왕 19년(720) 의상대사의 수제자인 상원대덕이 장건했으며 벽계 정심선사가 건성후 보림했던 수행처입니다.
- 조선 세조임금이 반야사에 들렀을때 문수동자가 나타나 밍경대로 인도했는데 이곳에서 목욕한 후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세조 임금이 어필을 남긴 유서깊은 도량입니다.
- 큰개울이 태극형태로 흘러 저수지를 형성하고 절을 에워싼 산봉우리는 연꽃형태를 띤 대명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황간인터체인지에서 10분거리로 명경대, 물헌계곡등 인근에 명승지가 즐비합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34 T)0414-742-7722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말사 반야사  
주지 성제 합장